

생각과 현실의 차이

박선영 아하!PC 기자 / lunar@ahapc.com | 아하!PC에서 소프트웨어팀이고 사람들은 일에 관심이 많다. 취미는 영화보기이며 특기는 "놀이"이다. 하지만 요즘 시간이 없어서 영화도 자주 못보고 잘 놀지도 못한다고. 시간 날 때마다 여유있게 살려고 노력중이라고...



어릴 적 나의 꿈은 기자였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이과를 선택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기자의 꿈을 이미 접어야 했다. 그런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기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PC통신 동호회 시삽을 맡아 열심히 활동하던 중 소개로 알게 된 당시 '아하!PC' 수석기자가였던 신진상 선배가 전화로 '수습기자가 필요한데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온 것이다. 오랜 세월 기사를 꿈꿔 온데다 전산을 전공했고, PC통신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어 별다른 망설임 없이 <아하!PC>에 입사를 결정했다.

<아하!PC>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 맡았던 섹션은 내가 가장 자신 있었던 PC통신이었다. 이 밖에도 몇 개의 인터뷰 쪽지를 맡게 되었는데 취재를 여러 번 거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생각과 현실의 차이'였다. 이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가볍게 웃으며 지나갈 일이지만 몇몇 작은 사건은 지금도 기억에 남을 만큼 커다란(?) 사건이었다.

내게 가장 처음 주어진 인터뷰 쪽지는 <힘내라! 서태지 세대>였다. 이 쪽지는 서태지처럼 기존 교육제도를 벗어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지면이다.

내가 잡지사 기자로 맨 처음 인터뷰할 대상은 김현진 씨였다. 김 씨는 H 신문의 광고 모델로도 활동했고 최연소 웹진 편집장, 한국예술 종합학교 영상원 최연소 합격자로도 유명한 인물이었다. 첫 인터뷰였던 만큼 그녀를 알기 위한 사전조사를 했다. 그녀가 쓴 책도 읽어보고 그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도 모두 구해서 읽었다. 글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한결같이 '똑똑하고 건방진 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해내고 마는 아이, 반항적인 아이' 등이었

다. 이 기사들은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 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무척 건방지고 오만할 것 같은 선입전까지 안겨주었다.

문제는 인터뷰 섭외가 잘 되지 않는 것이었다. 3일 동안 여러 경로로 노력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터뷰를 할 수 없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섭외하기 시작한 지 나흘만에 그녀와 통화가 이뤄졌고 인터뷰 약속을 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약속한 날, 회사에 '약속을 못지킬 것 같다'는 짧은 메모만을 남긴 채 그녀는 증발(?)해버렸다. 당연히 약속 장소에 그녀는 없었다. 휴대폰은 아예 꺼져 있었고 집에 전화를 해도 받는 사람조차 없었다. '이제 진짜 핑크인가' 하는 마음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을 알아보라는 선배의 말에 여기 저기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여전히 김현진 씨에 대한 미련은 떨칠 수 없었다. 오히려 오기가 발동해 꼭 그녀를 만나야 된다고 아집마저 생겼다.

한창 마감에 들어갈 즈음인 16일, 그녀와 통화가 되었다. 그녀의 할머니가 별세하는 바람에 시골에 내려가 연락이 끊겼다는 사연과 함께 미안하다는 사과를 들었다. 황당한 일이었지만 급한 마음에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어렵게 취재를 마쳤다.

실제로 만난 그녀는 평범한 19살 여대생이었다. 물론 남들과는 다른 과정으로 대학이란 곳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좀더 어른스럽고 조금은 고집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고 권투를 취미로 즐기는 그녀는 천진난만해 보였다.

약속이 핑크났을 때는 정말 '아, 첫 기사부터 핑크를 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 불안에 떨었다. 물론 날짜가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무사히 마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 가졌던 선입관은 직접 만나면서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것도 큰 수확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지금은 다른 기사가 마감에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 쪽지를 가장 먼저 마감하게 됐다.

내가 맡고 있던 PC통신 쪽지 가운데 하나였던 동호회탐방, 어떤 동호회를 취재할지 무척 고민스러웠다. 그러다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쉬리>가 아이টে姆으로 떠올랐다. 이 영화에 나왔던 키싱 구라미란 관상어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모 통신사의 관상어 동호회를 취재하기로 마음먹었다.

대개 사람들은 관상어라고 하면 커다란 수족관에 화려한 색깔을 뽐내는 열대어를 상상할 것이다. 물론 나도 그랬다. 취재를 하러 간 그 날은 관상어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멋진 수족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어 서울대공원으로 향했다.

전시장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환상이 여지없이 깨져버렸다. 이 날 전시한 관상어는 '구피'라는 것으로 새끼손가락보다 조금만 물고기였고 화려한 꼬리를 잘 보이게 하려고 수족관에는 아무런 장식도 하지 않고 곁에 까만 천으로 둘러놓은 것이었다.

나는 물론 함께 간 사진기자도 무척이나 난감해했다. 작은 구피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헤엄쳐 다녔기 때문에 멋진 사진을 제대로 찍기 힘들었다. 결국 기사의 메인 컷은 여러 가지 구피들의 사진을 모아 썼고 내 기사에는 온통 구피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었다.

첫 취재를 할 때 힘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절대 '이러이러할 것이다'란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 사전조사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동호회 탐방이나 업체 탐방 등을 할 때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인지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시작하는 버릇이 되었다.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생각과 현실은 작든 크든 차이가 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넘겨짚고 생각하면 막상 전혀 다른 상황을 다했을 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겪은 작은 일화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었다. **KCRC**